

이기는 삶 원팀(One team)이 되게 하라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출중(出衆)하다고 해도 한 사람의 힘으로는 다수의 힘을 이길 수 없다. 한 사람의 지식으로는 만물의 이치를 다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지혜와 힘보다는 여러 사람의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것이 낫다. 물론 한 사람의 생각만으로 일을 처리해도 성공한 경우가 있지만, 피로가 너무 크고 실패할 때는 엉망진창이 되고 만다.

소수에 의존하는 조직은 수많은 문제를 떠안게 된다. 그러므로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고 팀원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조직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팀보다 뛰어난 선수는 없기 때문이다. 높은 수준의 충성심, 복종심, 용기, 동정심을 소유하여 조직 내의 다른 이들을 돕고 공동의 선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조직일수록 다른 조직을 압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국가이든 조직이든 마찬가지이다.

동양에서 강조하는 멸사봉공(滅私奉公), 선공후사(先公後私)와 같은 이치다. 팀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로 무장한 조직, 모든 구성원이 조직에 충성하고 필요할 경우 조직의 목표를 위해 개인적인 목표

를 포기할 수 있을 때 그 조직은 승리한다. 결과적으로는 팀의 승리와 함께 개인의 성공도 보장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팀원들에게 자신이 하는 일이 사회에는 어떤 도움이 되고, 자신과 함께 일하는 팀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자신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고, 무엇보다 자신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어떤 행복을 얻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이야기하고 정보를 공유하라. 그다음에는 조직의 관점에서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라. 그렇게 하면 팀원들 스스로가 그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이유와 명분이 생기게 된다.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을 때 스스로 사명감을 가지고 몰입해서 일한다. 또한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질 때 주인의식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학습과 성장이 이루어지고 동료와의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능력을 인정받고 보상이 따른다면 더욱 열심을 내게 된다.

팬권은 이빨이 없다. 그런데도 물고기를 잘 잡는다. 그것은 바로 팬권의 부리 속

에 촌촌하게 난 덕 때문이다. 부리 안에 난 털은 모두 입 안쪽을 향하고 있다. 이 털 한 올 한 올의 힘은 약하지만, 이 털이 합쳐지면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일단 팬권에게 물린 물고기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한 사람의 힘은 미약하지만, 그 힘이 합쳐지면 매우 강력해진다. 팬권의 부리 안에 털이 한 방향을 향하고 있듯이 같은 이념을 공유하고 한 가지 목적을 향해 결집된 힘을 발휘할 때 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게 된다. 그것이 바로 팀워크(Team work)이다.

약한 자들이 합쳐서 강한 자를 이기는 것이 팀워크의 진정한 묘미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목적이 단순한 이윤 추구에 있다고 가르치는 경제 원론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원팀으로 경쟁력을 극대화하여 탁월한 경영 성과를 내도록 모든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고 모두로부터 존경받는 것, 그것이 바로 궁극적(窮極的)인 목표여야 한다.*

수니의 요가교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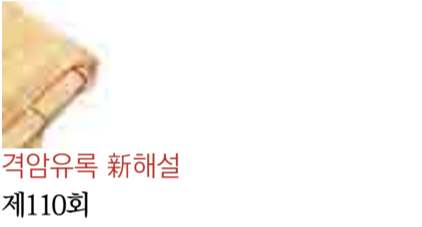
과학자들이 이 사람 말씀을 따라온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 내가 없는, 인간 전체가 한 사람 같은 마음을 갖고 사는 세상이 되면 어떤 세상이 되겠는지 상상해보라. 나와 내가 없는 세상은 국경이 필요 없다. 미국, 중국, 러시아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전체가 하나가 된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이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고 나와 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전 세계가 점차 이 사람의 말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 최첨단 과학자들이 이 사람의 말씀을 뒷받침해 주고 실험을 통해 증명하면서 계속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구세주 말씀 중에서*

준비운동 중에 슬관절, 족관절로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는 요가의 동작(아사나)과 호흡, 명상으로 꾸준히 수련하면 몸이 놀라울 정도로 가볍고 유연해져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요?

동작①: 슬관절 (무릎) 효능: 무릎 주변



적임유록 新해설 제110회

해방 후 이승만 대통령이 12년 집권 후 하야하고 윤(尹)씨가 섭정군이 되리라

말초가(末初歌)

正當之事人道 正當지사인도연만
人人相伴暗殺陰謀 人人상반암살음모
上下反覆不法盛 上下反復不法성
足反居上非運 足反거상비운으로
智將勇退登峯閣 智將勇退登峯각에
富不謀身沒貨泉 富不謀身沒貨泉
當世欲知生活計 當世欲知生活計
速圖二十八分前 速도이십팔분전을

鷄三三後黑蛇運 鷄삼삼후흑사운에
朝輝光 朝輝광을모르거든
日月明 日月明을알을세라
白羊依水未越卯止 白羊依水未越卯止
子商孫繼運 子商孫繼運
靑鷄一聲喜消息 靑鷄一聲喜消息
南渡涇龍無政治事 南渡涇龍無政治事
新增李氏十二年 新增李氏十二年
流水驚中人何生 流水驚中人何生

서양(西洋)을 말하고 미월(未越)은 신(申)이며 묘지(卯止)는 묘에 그치니 그대로 묘이다. 요약하면 일왕이 항복선언을 한 칠월칠십일이 갑신월 을묘일이다. 을유년 해방의 기쁜 소식을 듣고 곤룡(困窮) 즉 왕손(王孫)이 되는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남쪽 조선(한국)으로 건너와서 미군정을 거쳐 대통령이 되어 국가를 다스리지만 바른 정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느니라. 이승만 박사가 새로 이조의 왕운을 이어 12년간 정치를 하지만 흘러가는 물소리처럼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簾簾)하니 사람들이 어찌 잘 것인가?

馬山風雨自南來 馬山風雨自南來
熊潭魚龍從此去 熊潭魚龍從此去

천지 운수가 가진 일정한 이치와 법칙에 따라 잠시 잠깐 들고 도는 고로 세 갈래로 나뉘고 찢어지니 아침에 얻으나 저녁엔 잃는 가운데 탐관오리들만 이승만 대통령을 따르니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는 충신은 과연 몇 이던가? 가련하구나! 오늘날의 왕손자로서다. 이승만 대통령(곤룡)의 뒤를 이어 국가의 지도자(섭정군)가 될 자는 봄에 꽃이 피니 이십(二十)하고도 또 이(二)인데 이를 범 모르코 해득할 수 있겠는가? 이십이춘(二十春) 모르거든 공이(廿二)尹가 참사람임을 깨달아 아시오 이십이(二十)는 축(卅)자를 말한다. 경자년 419혁명으로 연로한 이 대통령이 물러나니 윤(尹=牛尾入=卅+) 꼬리를 넣음씨가 은연중에 자연히 나오게 됨에 따라 장면, 조병욱씨가 자중지란에 빠지게 되고 이후에 정권에 거역한 일로 옥사가 만연하기에 이르자 경상도 전라도에서 먼저 쫓기하게 되니 마산에서 시작된 데모가 전국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경진신사(庚辰辛巳) 즉 음력3월(경진월) 4월(신사월)에 일어난 일이라고 전했느니라. 이에 마침내 평민인 윤씨가 섭정군(攝政君)이 되리라.*

정정당당하게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건만 해방되자마자 사람들이 작당하여 암살음모가 횡행하며 상하가 뒤집히는 불법이 성행하니 아랫사람이 위에 거하려 하는 즉 하극상이 일어나는 비운을 맞게 되느니라. 지장들은 용퇴하여 내각에 들어가려 하지 않느니라. 부귀를 탐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몸이 돈의 썩에 빠져 죽으리라. 말세를 당하여 살아날 계책을 알고자 한다면 남북이 분단되기 전에 속히 남쪽으로 내려오도록 도모하시오. 이십팔(二十八)은 을 래(來)의 옛날 글자를 파자한 것임.

경인년 북쪽 빨갱이들에 의해 625사변이 일어나면 세상이 혼돈되는 것을 세 번 보게 될 것인데 그 삼월 삼사를 아는 자가 누구인가? 팔금산(八金山=釜山)아래에 있어야 안심할 수 있으니 그곳은 호환(虎患=경인년 625사변)이 범하지 못하는 곳이라고 전했네. 인심이 흥흥한 환란 중에도 여기저기 쌀농사가 대풍이라 놀란 인심을 안정하시오. 허영심에 빠져 정신이 나가면 세월이 갈수록 본심을 찾지 어려워우리라. 참빗으로 머리를 백번을 빗어도 살아남는 이가 있듯이 무리를 지어 헛다디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면 살길이 있느니라.

天地運數定理法 천지운수정리법
暫時時間循環故 暫時時間循環故
分別三朝得暮失 分別三朝得暮失
貪祿舊臣從幾人 貪祿舊臣從幾人
可憐今日王孫子 可憐今日王孫子
困龍之後代續 困龍之後代續
花開二十又二春 花開二十又二春
法법모르고 法법모르고
二十二春 이십이춘모르거든 二十二春 이십이춘모르거든
卅二眞人覺知 卅二眞人覺知
老鼠爭龍木子退 老鼠爭龍木子退
隱然自出牛尾入 隱然自出牛尾入
張趙二姓自中亂 張趙二姓自中亂
庚辰辛巳傳 庚辰辛巳傳
此後之逆獄蔓延 此後之逆獄蔓延
慶全驅起先發 慶全驅起先發

백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010 3912 5953

白虎三望世混沌 白虎三望世混沌
三月三時何知人 三月三時何知人
八金山下安心地 八金山下安心地
虎患不犯傳 虎患不犯傳
人心洶洶患亂中 人心洶洶患亂中
米穀大豐 米穀大豐
驚惶人心安定 驚惶人心安定
虛榮心 虛榮心
日去月諸 日去月諸
本心 本心
百梳猶留餘生風 百梳猶留餘生風
莫作群中最大名 莫作群中最大名
白狗六青鷄喜聲 白狗六青鷄喜聲

경술(庚戌=白狗백구)년 조선이 망하고 36년간 일제 식민시대를 거쳐 을유년(乙酉=靑鷄청계) 1945년에 해방의 기쁜 소식이 들리리라. 을유년으로부터 9년 뒤인 계사(癸巳=黑蛇흑사)운 부터 조선(한국)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을 모르겠거든 해와 달이 합하면 밝을 명(明)자 되는 이치를 알을 세라. 서양(미국)에 의해 일본이 항복하고 조선이 해방되어 이승만(李承晩) 박사가 망한 이씨 조선의 왕운을 잇게 되는 운이 왔네. 백양의수(白羊依水)는 백은 서(西) 양(羊)에다가 수(水)를 합하면 양(洋)이다. 따라서 백양의수(白羊依水)는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자가 되려면

고자라는 단어를 접하면 일종의 불구자이기 때문에 먼저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망측한 선입감을 갖고 사극(史劇)에서 임금님을 시종드는 내시가 떠오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고자라는 것은 수도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이다. 성경 마태복음 19장에 기술된 고자는 수도자가 지향해야 할 지고의 높은 경지이다. 필자의 할아버지는 마을에 탁발나온 스님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스님의 온몸에 상처가 많이 있기에 왜 그렇게 몸에 상처가 많냐고 물었더니 음욕(淫慾)을 끊으려고 해도 안되어 몸에 상처를 내면서 도를 닦았다는 일화를 내게 들려준 적이 있다. 절간의 스님들은 심지어 남근(男根)을 끊어버리기도 하는데 그레가지고 물론 음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벗어내려는 몸부림은 가상하다.

성경 마태복음 19장 1-12절에 이에 관한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緣故(연고)를 勿論(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라고 묻자 예수는 하나님께서 男子(남자)와 女子(여자)로 만드시고 사람이 그 父母(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合(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이혼하지 말고 말한다. 그러자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離婚(이혼) 證書(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랴 命(명)하였나 그 따지면서 묻자 누구든지 淫行(음행)한 緣故(연고) 外(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者(자)는 姦淫(간음)했다고 말한다. 그러자 弟子(제자)들이 그렇다면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예수는 고자는 세 종류가 있는데, 어머니의 胎(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天國(천국)을 爲(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생식불능으로 태어난 고자,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억지로 고자가 된 사람,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 위의 예피소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부분이다. 천국을 위하여 고자가 된 자, 즉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선택받은 자들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승리제단에서는 육체적으로 결혼생활을 하지 않는 정도가지고는 부족하고 마음으로도 음욕을 완전히 벗어난 경지에 이르러야 천국에 들어가 는 자격자가 된다고 가르치니 천국은 좁은문이 틀림이 없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충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 역곡제단 : (032)343-9981-2
- 수원제단 : (031)236-8465
- 안성제단 : (031)673-4635
- 평택제단 : (010)7516-1591
- 부안제단 : (051)863-6307
- 영도제단 : (010)6692-7582
- 김해제단 : (055)327-2072
- 대구제단 : (010)6530-7909
- 마산제단 : (055)241-1161
- 진주제단 : (055)745-9228
- 진해제단 : (055)544-7464
- 영천제단 : (054)333-7121
- 사천제단 : (055)855-4270
- 순천제단 : (010)3661-9025
- 정읍제단 : (010)8628-2758
- 군산제단 : (063)461-3491
- 대전제단 : (042)522-1560
- 청주제단 : (010)5484-0447
- 충주제단 : (010)9980-5805
- 양평제단 : (010)2945-8254
- 橫濱祭壇 : (045)489-9343
- 神戶祭壇 : (078)862-9522
- 下關祭壇 : (0832)32-1988
- 大阪祭壇 : (06)6451-3914
- London : (0208)894-1075
-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디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